

몽골인들의 말 문화

연 사 : А. Очир (A. Ochir)

소 속 : 몽골 국립 역사 박물관 관장

몽골인들의 말 문화

아. 오치르(몽골국립역사박물관 관장)

몽골은 역사상 유목 목축업이 성장 발전한 이래 지금까지 5000년 이상 축산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고 있는 지역이다. 몽골인들에게 가축사육은 가장 익숙한 산업으로서 고대사회부터 모든 생활의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것은 가축이 몽골인들의 정치·사회·경제·정신의 기초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목축은 정치사·사회생활·문화발전에 이르기까지 몽골인들의 모든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발전해 왔다. 목축이 융성하고 성장했을 때 몽골인들도 강성하고 발전했으며, 목축이 쇠퇴했을 때 몽골인들의 역사도 쇠퇴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목축의 역사는 몽골인들의 역사이며, 몽골인들의 흥망성쇠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인들에게 목축이 없는 생활 지식의 발전 및 역사는 상상할 수 없다. 몽골인들의 사회규범, 생활양식 및 관습 일체는 유목목축문화를 형성하였다.

몽골의 가축은 중앙아시아의 기후 조건에 적합하게 진화하여 왔으며, 1년 4계절 동안 사료를 먹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초원에서 풀을 뜯어 먹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몽골지역에 알맞은 가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몽골의 가축들은 가뭄, 폭설 그리고 추위 등의 어려운 자연조건을 견딜 수 있는 인내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몽골의 목축업은 가축의 수를 증가시켜 재산을 증식시킬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춘 산업이다. 몽골인들은 유목 목축을 수 천년 동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왔는데, 특히 양, 말, 산양, 소, 낙타 등의 5축의 발육과 번식 및 가축개량을 위해서 좋은 개체를 선별하는 등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기술과 실생활에 활용하기 위한 사육 기술들을 축적하여 왔다.

이러한 가축사육에 관련된 일체의 방법을 축적한 총체적 문화를 유목문명이라고 한다. 몽골인들의 형성한 유목문명은 인류문명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03년 말 현재 몽골의 가축 수는 약 25,400,000頭 정도이다. 이 가운데 낙타는 257,000頭이고, 말은 1,969,000頭이고, 소는 1,792,000頭이고 양은 10,756,300頭이고 산양은 10,652,900頭를 차지하고 있다. 몽골지역은 지형적 특성에 따라 대체적으로 4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다음과 같다. 높은 산의 고지대, 삼림초원지대, 평평한 초원지대, 대산맥의 저지대, 고비-알타이지대, 고비지대 등이다. 1,969,000頭에 이르는 몽골 말은 위의 4개 지대에 다양하게 분포한다. 말의 분포지를 살펴보면 19.5%는 높은 산지대, 17.8%는 삼림초원지대, 30.5%는 초원지대, 대산맥의 저지대와 고비 알타이지대에는 14%이고 18.9%는 고비지대 등에 분포한다. 그러므로 말은 몽골의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삼림초원지대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말은 몽골인들이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축으로, 유목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몽골 유목민들에게 말이 없는 생활은 상상할 수 없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몽골의 5축 중 말은 대략적으로 5,000년 전부터 인간들에 의해 사육되어졌다고 추정되는데, 말 없는 목축생활은 다른 가축의 관리 등을 포함하는 진정한 의미의 유목생활방식을 영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희박하게 한다. 말을 사육하여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유목 목축업이 목축인들의 주된 생업이 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유목민들이 운송 및 교통수단으로 말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모든 종류의 가축을 흠어짐 없이 사육하고, 초지를 찾아 유목하거나, 장거리 이동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몽골 유목민들은 모든 가축들 중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움직이는 말을 타고 이동함으로써, 쉽게 좋은 초지를 찾아 이동할 수 있었고, 가축의 수를 증가시키고 대외관계를 확장할 수 있었다. 게다가 말은 유목민 군대의 원정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말을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은 채 낙타, 양, 산양 등의 가축을 낙오나 흠어짐 없

이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더욱이 말없이 새로운 초지를 찾아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을 예측할 수 있다.

몽골인들의 큰 축제이면서 중요한 오락거리는 말타기 대회이다. 역사 사료 기술에 의하면 흉노(기원전 3-1세기)시대에 낙타, 말 등을 탈 것으로 이용하기 시작하였고, 선비(기원전 1-3세기)시대에는 잘 달리는 말을 선별하고 준마의 번식을 장려하였다고 한다. 준마와 일반마의 개체적 특징을 선별하여 번식시키는 고대사회의 전통은 지금까지도 몽골인들 사이에 계승 발전되고 있다. 몽골의 목축민들은 오랫동안 축척한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준마 선별 방법들을 계승 발전하여왔다. 몽골인들은 준마를 몇 종류로 구분하는데, 여기에는 갈샤르(Galshar), 테스(Tes), 미양가드(Myanggad) 등이 있다. 위의 준마들은 외형상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몽골인들에 의하면 준마는 81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들 중에서 일반적인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귀는 반듯하게 서있으면서 크고, 눈은 크고 총명하고 갈색을 띄어야 하며 눈꺼풀은 두툼해야 한다. 코와 콧구멍은 크되 같고 리 모양이어야 하고 배는 평평하며 둥근 모양이어야 한다. 견갑골은 높으며, 가슴은 넓되 갈비뼈는 크고 둥글게 구부러진 모양이어야 한다. 털은 윤기가 흘러야 하고 말발굽은 둥글고 쇠로 되어야 하며, 아킬레스 힘줄은 평평하고 넓적다리는 두껍고, 앞다리의 힘줄은 크되 뼈에서 떨어져 위치하여야만 하고, 4다리는 수직으로 뻗어 있는 등의 외형상 특징을 가진 말을 준마로 구분한다. 몽골인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진 말을 선별하고 훈련을 시킨 뒤 말타기 대회에 참가하였다. 또한 준마의 먹이를 조절하는 일은 특별하고 세심한 방법을 필요로 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전문적인 소수의 사람들만이 말을 묶고 먹이를 조절할 수 있다. 따라서 말들의 특징과 상황에 따라 필요한 말고삐와 먹이 등을 조절하면서 준마를 사육하였다. <사진 1. 경주마들>

몽골에서는 8세부터 13세까지의 어린이들이 말타기 대회에 참가한다. 말타기 대회에 참가하는 어린이들은 특별한 옷차림을 하였고, 준마도 특수한

형태의 안장과 말굴레를 하였다. 이러한 마구들은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가벼운 특성을 가진 것들이었다. 몽골인들은 준마이외에 일반말도 존중하였는데, 이들 일반 말 역시 선별하여 번식시키고 교통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일반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가볍고 작은 머리와 총명한 눈, 쫓긋 세워져 있지만 크지 않은 귀, 근육질의 가슴, 날렵한 몸, 앞다리 사이의 간격은 넓지 않은 것, 다리는 두껍고 말발굽은 강한 것, 그리고 평화롭고 안정적 성격을 가지고, 몸에 어느 정도 살집이 붙어 있는 등의 특징을 가진 건강한 말을 선별하여, 일반말로 사육하였다.

몽골인들은 말을 몇 천년동안 운송과 교통수단으로 사용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특수한 마구들과 장식들을 만들어 냈다. 말안장에는 토질(Tojil), 보르지긴(Borjigin), 삼보(Sambu), 바야드(Bayad) 등의 다양한 문양과 형태가 있다. <사진 2. 말안장> 말 등에 짐을 실을 때는 일반적인 안장이외에 특수한 안장을 사용하였다. 말굴레는 한 줄 또는 두 줄의 은으로 짠 것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말을 잡거나 안정시키고 움직임을 조정하기 위한 많은 종류의 마구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보고일(Buguil)¹⁾, 오르가(Uurga)²⁾, 츠드르(Chödör)³⁾, 토샤(Tushaa)⁴⁾ 등이 있다. 고대 몽골인들은 각 씨족마다 각각 고유한 가축 도장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가축의 귀에 다양한 형태의 가위자국을 내어 소유를 표시하였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행해지는 풍속이다. 주로 말의 넓적다리, 앞 다리 등에 낙인을 찍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말의 귀에 낙인을 찍기도 하였다. 이러한 낙인을 찍는 도장은 어느 지역, 어떤 씨족의 소유임을 알리는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사진 3. 도장과 가위자국 그림>

유목생활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탈것은 “오르긴(Uurgin) 말”이다. 이 말은 말이 가진 고유의 특성을 바탕으로 새끼 때에 선택된다. 몽골인들은 “오르긴 말”을 타고 오르가로 다른 말을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 오르가를 잘 다루도

1) 역주-말을 잡는 가죽 끈.
 2) 역주-말을 잡는 장대.
 3) 역주-말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앞과 뒤의 다리 3개를 묶는 줄
 4) 역주-말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해 앞의 두 다리를 묶는 줄

록 훈련된 “오르긴 말”은 몽골인들이 오르가를 사용하여 쉽게 다른 말을 잡도록 돕는 역할을 하였다. <사진 4. 말을 잡는 사진> 몽골인들에게는 “혼니(Honi) 말”이라 불리어지는 말도 있다. “혼니 말”은 양치기 말로서 기본적으로 순종적이고 안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제 몫을 다할 수 있다. 또한 오랫동안 움직여야 하기에 힘을 축척하고 있는 말로서 장시간 이동에도 참을 수 있는 인내력을 갖춘 말들이 “혼니 말”이 되었다.

몽골인들은 모든 가축들 중에서 말을 가장 존중하고 있으며, 5축 중 말을 으뜸으로 보아 말을 숭배하고 제사지내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말이 몽골인들의 유목생활 및 목축생활에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몽골인들의 말 숭배는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 온 것이다. 청동기시대 또는 3,000-4,000년 전에 만들어진 암각화에는 말을 존중하는 풍습이 반영된 그림들이 그려져 있다. 또한 몽골의 청동기시대에 해당하는 무덤들에서는 말을 매장한 뼈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몽골인들의 말 숭배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후 몽골에서 말 숭배를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양식은 말을 신성시하여 신에게 바치는 獻馬풍습이다. 대부분의 몽골인들은 흰색 말을 하닥(Hadag)이라는 비단으로 된 푸른 천에 싸고 특별한 의식을 진행하였는데, 의식에 사용된 말은 신성시하여 함부로 타지 못하게 하였으며, 나쁜 말로 비방하거나 때리거나 도살하여 음식에 사용하는 것을 금기시하였다. 또한 몽골인들은 말 그림을 그렸는데, 이러한 그림을 “히모리(Hiimori)”라고 한다. 몽골에서는 지금도 “히모리”를 집에 모셔두고 숭배하는 풍습이 남아 있다. 몽골인들의 말을 존중하는 의식은 타는 말의 색깔과도 관계가 깊다. 몽골의 황족이나 귀족들은 대부분 담황색이나 적황색 말을 탔고, 무당들은 주로 흰색 말을 탔다. 예전에 몽골에서는 글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집의 글을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글을 받는 것을 희망하곤 하였다. 이때 글을 받으러 가는 사람은 글을 써주는 가정을 방문할 때 흰색의 전통의상인 델을 입고 흰색 말을 타고 갔다.

일반적으로 몽골말은 비록 몸집은 작지만 훌륭한 운송수단이었으며, 사료

를 준비해 둘 필요 없이 1년 4계절 동안 먹이를 자연에서 스스로 찾을 수 있다. 특히 눈이 많이 쌓인 겨울에 말은 앞발로 눈을 헤치고 마른 풀을 먹는다. 또한 말은 서서 자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추위에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몽골이외의 다른 종의 말들은 자기 몸의 1/4되는 짐을 싣고 이동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몽골의 말은 자기 몸의 1/3이나 되는 짐을 등에 지고 장거리 이동을 할 수 있다.

Монголчуудын адууны соёл

А. Очир

Монгол оронд нүүдлийн мал аж ахуй үүсч хөгжсөнөөс хойш одоо болтол 5,000 гаруй жил болжээ. Мал нь бие даасан аж ахуй болсон эрт цагаасаа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ин зуулгын үндсэн хэрэгсэл байв. Энэ нь мал аж ахуй чухамдаа монголчуудын нийгэм, улс төр, эдийн засаг, оюун санааны бааз суурь нь болсоор өдгөө хүрчээ гэсэн үг юм. Тиймээс ч улс төр түүх ч, нийгмийн амьдрал, соёлын хөгжил ч мал аж ахуйтай салшгүй холбоотой явж иржээ. Мал аж ахуй нь өсөн дэвжихэд монголчууд хүчирхэгжин мандаж, мал нь хорогдон цөөрөхөд тэд бас бууран дорддог байв. Энэ утгаараа мал аж ахуйн түүх нь нийт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ьдрал тэмцлийн түүх тэдний хөгжил цэцэглэлтийн замналтай гүнзгий холбогджээ. Мал аж ахуйгээр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ьдрах ухаан өнгөрсөн түүхийг төсөөлөхийн аргагүй юм. Монголчуудын нийгмийн тогтолцоо монголчууды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ёс заншилыг чухамдаа бол нүүдлийн мал аж ахуй буй болгожээ.

Билчээрийн монгол мал нь Төв Азийн эрс тэс уур амьсгалтай байгаль цаг уурд гойд зохицсон, жилийн дөрвөн улиралд дан бэлчээрээр хоолоо олж идэж чаддаг, ган, зуд, хүйтэн зэрэг байгалийн бэрхшээлд үлэмж тэсвэртэй, үржин төлжих, ашг шим бүрдлэх чадвартай аж ахуй юм.

Монголчууд нүүдлийн мал аж ахуйг олон мянган жил хөтөлсөөр ирэхдээ, 5төрлийн малыг өсгөн үржүүлэх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ж аль шилдгийг нь үлдээх ашиг шимийг нь боловсруулан амьдрал ахуйдаа хэрэглэх, цогц арга ухааныг буй болгосон байна. Эл арга ухааны цогцыг нүүдлийн соёл иргэншил хэмээн нэрийддэг.

Монголчууд буй болгосон нүүдлийн соёл иргэншил нь хүн төрөлхтөний

түүхэнд тэдний оруулсан үнтэй хувь нэмэр юм.

2003оны эцсээр монгол улсад 25.4сая мал байв. Үүнд тэмээ 257,0мянга, адуу 1,969сая, үхэр 1,792сая, хонь 10,7563сая, ямаа 10,6529 сая байв.

Монгол орны нутаг нь өндөр уулын бүс, ойт хээрийн бүс, тал хээрийн бүс, Их нууруудын хотгор, Говь-алтайн бүс, Говийн бүс хэмээх 4бүст хуваагддаг.

Монгол улсад буй 1,969сая адуу нь дээрх 4бүсэд харилцан адилгүй байна. Үүнээс адууны 19.5% нь өндөр уулын бүст, 17.8% нь ойт хээрийн бүст, 30.5% нь тал хээрийн бүст, 14% нь Их нууруудын хотгор, Говь-алтайн бүс, 18.9% нь Говийн бүст нутаглаж байна. Ойт хээрийн бүсэд адуу илүү тархсан нь дээрхээс харагдаж байна.

Адуу бол монголчуудын хамгийн их эрхэмлэн хүндэтгэдэг мал, нүүдлийн амьдралд нэн чухал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юм. Монголын нүүдэлчид адуугүйгээр бараг төсөөлөх аргагүй юм. Судлаачид хэдийгээр таван хошу(зүйл) малын дотроос адууг хожуу буюу 5,000 гаруй жилийн өмнөөс гаршуулсан, хэмээн үздэг боловч ерөөс адуугүйгээр мал аж ахуйн бүрэн утгаар нь эрхлэн хөтөлж нүүдлийн амьдралын хэв маяг жинхэнэ ёсоор төлөвшин тогтох бололцоо хомс юм. Нүүдэлчид адууг гэршүлэн түүнийг уналга, тээвэрт хэрэглэдэг болсоноор нүүдлийн мал аж ахуй жинхэнэ бие даасан аж ахуй болж төлөвшсөн гэж бид бодож байна. Учир нь нүүдэлчид адууг уналга, тээвэрт хэрэглэдэг болсоноор бүх төрлийн малыг алдахгүй маллах, бэлчээр даган нүүдэллэх хол аян хийх бололцоо үлэмж нэмгдсэн юм. Тийнхүү бүхмалаас илүү хурдан гавшгай унаатай болсоноор нүүдэлчдийн хөдөлгөөн хийх чадвар эрс нэмгдсэн байна. Энэ нь бэлчээрийг сайтар ашиглах малын тоо толгойг нэмгдүүлэх дотоод гадаад харилцааг өргөтгөх боломж урьдахаас өргөжсөн нь мэдээж юм. Морьтой болсоноор нүүдэлчдийн цэрэглэгчидвар ихээхэн нэмгдсэн байна.

Ялангуяа адууг уналганд ашиглахгүйгээр хүн үхэр, тэмээ, болон хонь ямааг ч өөрийн эрхшээлд байгалах, алдахгүй хадгалж бэлчээрлүүлж байна гэдэг үнхээр хэцүү байсан гэдгийг төсөөлөхөд

төвөггүй юм.

Монголчуудын нэг баяр цэнгэл бол хурдан морины уралдаан юм. Түүхийн сурвалжид тэмдэглэснээр бол, Хүннү улс(МЭӨШ- I) тэмэ э, морь уралдуулдаг байсан бол Сяньби(МЭ I -III)нар хурдан с айн хүлгүүдийг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ж үржүүлдэг байжээ. Адууг дото р нь хурдан морь, өдөр дутмын унааны морь гэх мэтээр сонгон шалга руулж үржүүлдэг эртний уламжлал дунд одооч уламжлалгдсан ба йна.

Монголчууд хурдан морийг гаднаас нь харж, шинжлэн таньдаг. Тэгэхдээ монголчуудын ойлголтоор бол, хурдан морь нь дотроо хэдэн янзын хэлбэр төрхтэй байдаг. Одоо монгол улсад Галшар, Тэс, Мянгад гэх хурдан угшлын адуу байсаар байна. Дээрх хурдан угшлын адуунууд нь хэлбэр галбирын хувд ялгаатай юм.

Монгол хурдан моринд 81 шинж буй гэдэг. Гэвч хамгийн ерөнхи й зонхлох шинж гэж буй. Тэдгээр ерөнхий шинж тэмдгүүд нь гэвэ л : чих нь босоо урт, нүд хүрэн, зовхи зузаан, хамрын нүх том, цэ эж өргөн, туурай төмөр аяга мэт цомбогор, зоо нуруу толигор, бор ви тэгш, салтаа уудам, мундаа сэрвээ нь өндөр, хавирганы матаас их(дугуй), ташаа тэгш, урд хоёр хөлийн шөрмөс бүдүүн бөгөөд яснаас аа хөндий зайтай байрласан, хамар монхордуу, нүд нь бүргэдийн нү д мэт хурц, гэдэс нь бөөрөнхий дөрвөн хөл нь багна мэт эгц байд аг гэнэ. Ийм шинжүүдтэй адууг сонгон шалгаруулж олж сойж уралдуул даг.

Хурдан морины хоол тэжээл тохируулах нь тусгай нарийн арга ухаан юм. Үүнийг хүн бүр хийдэг ажил биш. Мэргэшсэн цөөн хүмүүс л хурдан морийг уяж хоол тэжээлийг тохируулж чаддаг. Тэгэхдээ морь бүхний онцлог байдалд тохируулан уяа сойлго, хүнсийг нь тохируулдаг байна. (уралдааны моридын зураг)

Монголд уралдааны моридыг 8-13 насны хүүхдүүд унаж уралдуулда г. Хурдан морь унадаг хүүхдүүд нь тусгай хувцас хэрэгсэлтэй байх аас гадна эмээл тохом хазаар нь өвөрмөгц хийц хэлбэртэй байдаг. Тэрх үү тоног хэрэгсэл нь морины хурдан давхих хөдөлгөөнд саадгүй хөнг өн байдаг онцлогтой.

Монголчууд хурдан морноос гадна чих нь бас өдөр дутмын унааны

морийг эрхэмлэн тусад нь сонгон үржүүлж, уналга эдэлгээнд хэрэглэдэг. өдөр дутмын унааны сайн морины ерөнхий шинж нь гэвэл, хөнгөн жижиг толгойтой, хурц хараатай, том бус босоо чихэй, булчинлаг цээжтэй, нарийвтар биетэй, урд хоёр хөлийн хоорондох зай нь их биш, хөлийн шөрмөс бүдүүн, туурай нь бат бэх, тайван дөлгөөн зантай, махлаг биетэй тэнхээтэй байдаг гэнэ.

Монголчууд адууг олон мянган жил уналга эдэлгээнд хэрэгсэлэх явцдаа морины тусгай тоног хэрэгсэлүүд ба гоёл чимэглэлийн зүйлсийг бүтээжээ. Морины эмээл нь гэхэд тожил, боржигин, самбуу, баяд гэх мэт олон янзын хийц хэлбэртэй байдаг (эмээлийн зургууд)

Моринд ачаа ачихад эмээлээс гадна зориусан эрвээлж гэх мэт тоног хэрэгсэл байна. Мөн хазаар гэхэд, мөнгөтэй дан суран, давхар суран, мөнгөн гөрмөл гэх мэт олон янз бий. Адууг барих тогтоох хөдөгөөнийг нь хорих олон зүйл тоног хэрэгсэл байдаг. Үүнд бугуйл, уурга, чөдөр, тушаа, ногт гэх мэт орно.

Монголчууд эрт цагт овог бүхэн малдаа дардаг тамгатай бас малын, чихэнд нь хийдэг имүүдтэй байсан одоо ч байна.

Адууны гуяа заримдаа хаанд тамга дарахаас гадна бас зарим нутагт адууны чихэнд ийм хийдэг. Им, тамга нь аль нутгийн ямар овгийн хэний адуу мал болохыг зааж өгдөг тэмдэг юм.(Тамга ба имүүдийн зураг)

Аян нүүдлийн амьдралд нэгэн чухал унаа бол уургын морь юм. Уургын морийг мөн л түүний шинж тэмдгүүдийг нь үндэслэн, багаас сонгон авна. Тэгээд түүнийг унаж уургаар бусад адууг барихад сургана. Уурганд сайн сургасан уургын морь нь хүн бусад морьдыг барьж авахад ихээхэн дөхөм үздэг. (Морь уургалж байгаа зураг)

Монголчууд бас хонь морь гэж буй. Хонины морь нь номхон тайван зантай, удаан хөдөлгөөнтэй, тарга хүчээ сайн хадгалдаг, удаан хугацаанд унаж эдлэхэд тэвчээртэй байх шаардлагатай.

Монголчууд адууг бүх малынхаа дотроос хамгийн их эрхэмлэн, таван зүйлийн малын манлай гэмээн үзэж, түүнийг тахиж шүтэх соёлыг буй болгосон байна. Энэ нь адуу монголчууд нүүдлийн амьдрал, аж ахуйгаа хөтлөхөд онцгой ач холбогдолтой байсанаас

холбоотой. Монголчуудын адуу шүтэх ёс эртний уламжлалтай. Хүрэл зэвсгийн үеийн буюу одоогоос 3,000-4,000 жилийн өмнөх хадны зурагт адууг эрхэмлэх ёс тусгагдсан байна. Мөн монгол нутаг дахь хүрэл зэвсгийн үеийн зарим булшнаас адууны оршуулга, яс, олддог нь тэр үед адууг эрхэмлэн шүтэж байсны илрэл юм. Хожуу үеийн шүтэх ёсны нэг хэлбэр бол морь сэтэрлэх заншил юм. Монголчууд ихэнх тохиолдолд цайвар зүсний адуунд торго хадгаар сэтэр зүж, тугай ёс гүйцэтгээд, тэр морийг дүр зоргоор унадаггүй, муу үгээр харадаггүй, цохиж зоддоггүй, мөн алж хүнсэнд хэрэглэдэггүй байв. Монголчууд морины зураг зураад үүнийгээ хийморь хэмээн нэрлээд гэрийн хойморт байрлуулан шүэж тахих ёс одоо ч хадгалагдаж байна.

Монголчууд адууг эрхэмлэх ёс нь унах морины зүстэй ч холбогдоно. Монголын язгууртан, ноёд ихэнх тохиолдолд хонгор, хул, зээрд морь унах нь элбэг байсан бол бөө удган хүмүүс гол төлөв цагаан морь унадаг байжээ. Урьд монгол хүн бүр бичиг үсэг мэддэггүй байхад аль нэг айл өөрийн нутгийн бичиг сайн мэддэг хүнээс угийн бичиг бичгээ хөтөлж өгөхийг хүсдэг байв. Тэр угийн бичиг хөтлөх бичигтэн хүн нь ногоо айлын угийн бичигийг хөтлөхөөр очихдоо, бас цагаан дээл өмсч, цагаан морь унаж очдод байжээ.

Ер нь монгол адуу нь бие жижиг боловч тэвчээр сайн, тусгай тэжээл, бэлтгэсэн тэжээл шаардаггүй, жилийн дөрвөн улиралд хоол хүнсээ байгалаас өөрөө олж идэж чаддаг. Ялангуяа их цастай үед урд хоёр хөлөөрөө цасыг малтан өвсийг ил гаргаж иддэг, зогсоогоороо унтаж чаддаг онцгой чадвартай юм. Судлаачдын тэмдэглэснээр, монгол адуу биеийн жингийнхээ гуравны нэг(1/3) тэй тэнцэх ачаа нуруундаа тээвэрлэн холын зам туулж чаддаг бол бусад үүлдрийн адуунууд нь биеийн хингийн дөрвөн нэг(1/4)-тэй тэнцэх ачааг нуруундаа тээвэрлэж чаддаг аж.